

제8차 아시아 양봉대회 성료

호주 양봉대회(Asian Australian Apicultural Conference)를

다녀와서—



황 협 주 부 회 장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호주의 퍼스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아시아·호주 양봉대회가 개최되었다.

아시아 양봉대회 사상 최초로 아시아권을 벗어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개최국 호주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 스페인 등 전 세계 20여 개 국에서 약 200여 명이 등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흑자를 비롯한 조상균 양봉조합장등 10명의 업계 대표를 비롯하여 농업과학기술원의 김영수·우순옥 박사, 그리고 청진테크(대표 김철구) 등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가 개최된 퍼스(Perth)는 서부호주의 주도(州都)로서 호주내에서도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양봉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통관이 너무 까다로워 전시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개막식에서 서 호주 농림부의 Hon Kim Chance 장관은 청정지역인 서 호주에서 양봉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고, 특히 유기벌꿀(organic honey)은 건강식품과 의약품, 미용 등 그 사용처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화분매개를 통한 농산물의 증대효과는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고 역설하며 각국의 대표를 환영하였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AAA회장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마사카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개최국 호주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미주에서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대회 2일째 있었던 업체탐방 프로그램에서 호주, 일본, 태국, 이란 대표와 함께 1조에 속한 우리 대표단은 이들과 함께 양봉기구 공장, 화분 채취 가공공장, 벌꿀채밀 공장 등을 함께 방문하며 각국의 양봉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농진청 양봉 잠사 소재과 김영수박사는 참나무 수액을 이용한 말벌류의 유인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한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Quercus spp.)수액과 꿀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인제와 기존의 나방 성페로몬 트랩을 개조하여 만든 말벌 트랩을 이용한 친환경 말벌 유인 퇴치발표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 청진테크의 봉독채취기는 남미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초청과 실제구매 등 문의가 잇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서부호주에는 940명의 양봉농가가 32,000군의 벌을 키우고 있는데 이중 90%는 50군 내외의 벌을 가지고 하는 부업 또는 취미 양봉농가이며, 10%만이 100군 이상의 벌을 가지고 전업으로 양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군당 1년간 평균생산량은 200~300kg 정도이며 서부호주의 총 생산량은 4천톤으로, 이중 약 40%는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 양봉원이 마련한 멋진 양고기 바비큐로 일행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찾아간 또 다른 양봉장에서 시연된 채밀작업은 봉개된 소비의 밀도질에서부터 채밀까지 1~2사람의 인력으로 손쉽게 채밀할 수 있는 자동채밀기가 소개되었는데 한번에 120매의 소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에 우리 일행을 포함한 각 국의 대표단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벌을 키우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양봉농가 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엄청난 수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행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대표단의 동일한 의견이었다. 함께 참여한 일행 중 한명은 우리양봉가가 이곳에서 양봉을 한다면 군당 500kg 이상은 생산할 자신이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귀국길에 들른 시드니에서는 1985년 아르헨티나로 1차 양봉이민을 떠난 후 1987년 다시 호주로 이주해온 허정민씨를 만나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사위인 정운철씨와 함께 우리 숙소를 방문한 허정민씨는 이곳에서 에덴양봉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350km가량 떨어진 곳에 양봉장을 가지고 있는 허정민씨는 1991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종봉을 수출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에덴양봉원은 현재 300군의 벌을 가지고 연간 3회정도 이동하며 약200여 드럼의 꿀을 생산하여 시드니 시내 건강식품코너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벌꿀을 포함한 양봉산물의 수출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을 만나러 피곤한 몸을 이끌고 300여km를 달려와 2시간 가량의 대화 후 떠나는 허정민씨의 뒷모습에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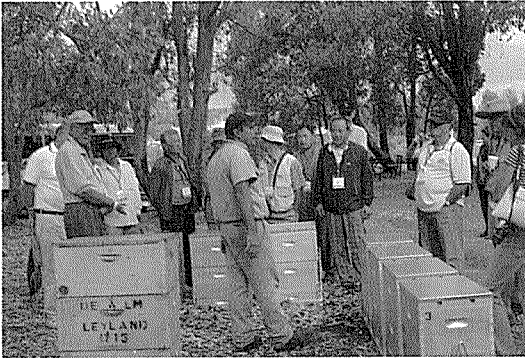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AAA를 이끌었던 마스카회장(일본, 다마카와대학 교수) 후임으로 AAA 부회장인 왕시리 박사(Dr. Wongsiri /태국 Chulalongkorn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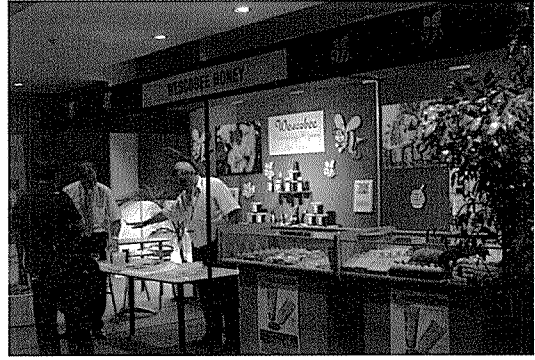
한국전시관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2008년에 열리는 제9회 대회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보고 느낀 점은 우리도 하루빨리 대 단위 밀원수를 식재하여 1군당 500kg을 채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밀원문제로 인하여 이동하고, 분쟁이 없는 양봉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꿀을 먹고 선택 할 수 있는 제품/용기개발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 양봉농가가 편안하게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전시장을 뒤로하고 출국 길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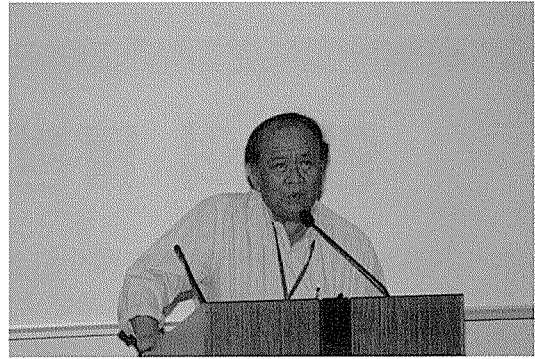
beez neez 양봉장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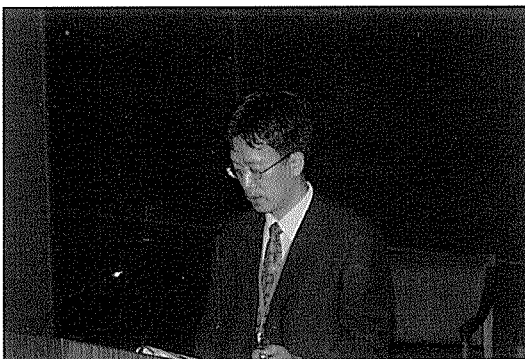
wescobee 전시장



개막식(우로부터 황협주 분협 부회장, 조상균 양봉조합장, 이호주FAO사무관



신임 AAA회장에 당선된 왕시리박사(태국)



연구발표중인 농업생물부 김영수박사



호주로 양봉이민을 온 허정민씨와의 대화 (옆은 사위 정윤철씨)